

韓牛의 輸出은 可能한가?

農水産部 畜産課

鄭 東 烘

1. 머리말

한우는 오랜동안 우리민족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해 오면서 힘든 농사일을 도와 주고 늙어서는 인류에게 식육을 제공 하여 왔고 또한 농가의 귀중한 재산증식 수단 으로서 큰몫을 차지 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를 비롯하여 돼지 닭등 많은 종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나 사육호수나 두수 면에서 한우가 대종을 차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면 에서도 큰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한우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사육기간이 길고 자본회전이 느려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으나 다수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대종을 이루고 있는것은 오랜동안 우리의 기후풍토에 적응되어 왔고 사육기술도 보편화 되어 가족노동으로도 손쉽게 기를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간 한우의 사육동향을 보면 지난 60년대에는 6.25동란의 참화를 겪으면서 한우도 큰수난을 당하여 당시 60만두이던 한우는 20만두가 감소된 40만두까지 줄어들어 농사짓는데도 소가 모자라 농경을 위한 소증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농업의 기계화보급율이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고도화되면서부터 축산물소비가 급격히 늘어남에따라 쇠고기는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 하여야만 했다.

소사육두수도 1978년도에 178만두를 고비로

점차줄어 들어 81년에는 151만두 까지 감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의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쇠고기 자급을 위한 소증식이었으며 정부나 양축농가 모두 소사육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송아지입식자금지원, 외국소도입, 한우번식단지의 조성등 소증식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82년부터 소사육두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해 6 월에는 303만두까지 늘어났으나 연말에는 294만두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이에따라 쇠고기 자급수준은 앞당겨졌으나 소값이 불안정하여 양축농가에 어려움이 되고있다.

따라서 소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로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쇠고기소비촉진과 소의수매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우 수출문호도 개방하여 지난 76년이후 10년만에 수출을 재개 함으로써 소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되어 외화획득의 일익을 담당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수입국인 일본의 수입제도와 여건등을 소개하고 한우의 수출전망을 제시하여 양축농가와 소수출에 관계하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 한우 수출실적

한우가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인들에 의해 많은 양이 수출되어 오 늘날 일본 화우개량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나 몇두가 수출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후 지난 62년부터 69년까지 주로 시험용으로 314두가 수출 되었고 73~76년까지 3,325두가 수출되어 62~76년까지 모두 3,639두가 수출 되었으나 '77년 이후 줄곧 수출이 중단 되다가 지난 '85년부터 수출 문호가 열려 민간주도하에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3. 소수출에 관한 국내법규 및 규정

소(CCCN 0102)를 수출하려면 무역거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5하반기 '86상반기 수출요령(상공부고시 제 85-17.)에 의하여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축협중앙회장은 수출종류, 규격과 수량등 추천요령을 정하여 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공고한(축협공고 제 40호, 85. 6. 11)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품종: 한우, 육우, 교잡우, 유우수소 단,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은 수출 할 수 없음.

○ 규격 및 수량: 제한없음. 다만 국내수급 조절필요시 수량제한.

○ 추천대상자: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기업목장, 기타축협중앙회장이 인정 하는 자.

○ 추천권자: 축협중앙회장 또는 축협도지부장.

○ 구비서류: 수출허가신청서 4부, 수출신청장 또는 계약서사본 1부, 수출대행계약서사본(수출대행시) 1부

한편 수출하는 소는 일본정부의 위생조건 요청에 의거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검역절차는 사육농장에서 선적전 30일에서 60일사이에 결핵과 요네병 이환 여부를 검사받고 출국전 7일간 검역시설(검역시행장)에서 타동물과 격리하여 부르세라병, 아나푸라즈마병, 렙토스피라병, 전염성비기관염에 대한 정밀검

사와 기타질병에 대한 임상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IBR(전염성비기관염) 과 BVD(류코잘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검역과 예방접종을 받은 소에 대하여 검역결과 적합하다고 증명된 수출동물 검역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수출 할 수 있다.

4. 일본의 쇠고기수급구조

'84년을 기준한 일본국의 연간 쇠고기 수요량은 507천톤(한국은 84년 106.5천톤)인데 이중 약 70%인 353천톤은 일본국내에서 주로 젓소고기와 화우고기로 공급하고 30%에 해당하는 154천톤은 수입에 의존 하였으며 수입육중 95%인 146천톤은 쇠고기로, 나머지 5%인 8천톤은 生牛를 수입 하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매년 쇠고기수급 전망에 따라 쇠고기 수입계획량을 축산진흥사업단에 일괄 할당하여 상사를 통해 수입한다. 단, 학교급식용 호텔용은 상사에서 직접수입 하고 있다.

5. 일본의 생우수입제도

일본의 생우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송아지를 수입하여 비육용소우로 수입하는 경우와 큰소(비육된소)를 수입 직접도축이용하는 경우이다.

비육용송아지는 필요에 따라 농업관계 4개 단체에(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전국낙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축산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전국개척농업협동조합 연합회) 물량을 배정 수입하게 하고 도축용큰소는 슈퍼마켓이나 실수요자가 자유수입하게 하고 있다.

○ 수입규격

비육용 송아지는 10개월전후의 250~300kg으로서 수소는 거세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우의 경우 상사간 협약사항에 따라 미거세우도 수

입 하고 있다.

도축용큰소는 4 세이하로서 체중은 500kg이상이며 지육은 60%정도(300kg) 이상으로 수소는 거세 한것을 희망하고 있다.

○ 수입검역제도

일본의 동물검역소는 横浜, 名古屋등지에 9 개소가 있는데 수용능력은 1,400여두로서 연간 30~40천두의 검역이 가능하다. 일본에 수입되는 소는 수입하기 90~120일 전부터 수입축의 종류, 마리수, 시기, 장소등을 사전 제출받아 일본정부로부터 검역장소를 미리 배정 받아야 검역을 받을수 있고 수입이 가능하다.

검역기간은 약 15일간 입항지의 인근 검역소에서 격리 계류검사를 실시 하게된다.

○ 수입관세 제도

종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비육용소우(300kg미만)의 경우에는 45천엔(한화로 약 221천원), 큰소는 75천엔(한화로 약 368천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6 . 일본의 생우수입 현황

일본의 생우수입량은 연간 10천여두로 많은 양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85년부터 엔화가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85년의 경우 도축용 큰소는 8천여두가 수입되었고 비육용소우는 쿼터량 10천두중 3,500여두가 수입되고 3,000여두는 '86 1/4분기로 이월 수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내 수입업체는 일본가축수출입협회 회원 72개업체중 약 20개업체가 생우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7 . 일본의 한우수입 동향.

일본의 생우 주수입선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이나 한우수입이 거론된것은 지난해 부터

인데 한우의 국내시세가 크게 떨어진데 반하여 일본의 화우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자 한우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 수입상사들이 자사 서울지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등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한우의 조건을 보면 큰소보다는 250~300kg 정도의 비육용송아지를 희망 하고 있다.

또한 금년 4월이후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일본국내 소값이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자 관세와 수송비등을 지불 하더라도 수입채산성이 있다고 판단 생우수입을 늘이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한우 수입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8 . 일본의 산지소값

일본은 화우가 1900년대부터 육우로 개량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여타 육우품종에 손색없는 훌륭한 품종으로 육종되었는데 색깔과 암수 성별과 지역에 따라 소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지육도 고기의 질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등급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 일본의 산지소값(86. 3)

		적색암소	흑색암소	적색거세우	흑색거세우
구마모도	엔화	940	931	956	996
	한화	4,606	4,562	4,684	4,880
마에베시	엔화	-	1,085	-	1,187
	한화	-	5,317	-	5,816

※ 조사자료 : 주일대사관, ¥ 화 환율4.9 : 1

9 . 한우수출 전망.

한우수출이 민간주도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허용되고 일본축상사에서도 상담요청이 추진됨에 따라 일본상사와 기존거래선이 있는 국

내 3~4개업체에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소수입은 앞에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연간 10천두정도가 수입 되는데 검역소의 제한 요인과 관세등으로 일시에 다량의 수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본다.

또한 일본의 생우수입은 대부분이 호주나 미국등지에서 값싼 소가 수입되고 있으나 이들 육우는 지방함량이 많기 때문에 기호성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 화우는 다른 육우보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아 수입소 보다는 상당한 가격차가 있다.

한우는 육질이 화우와 비슷하여 일본인들의 기호에 아주 좋다고 하며 지난 2월중 수출된(111두) 송아지(270~300kg)의 자질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화우시세는 앞표에서 본바와 같이 400kg기준으로 볼 때 좋은것은 190~200만원을 호가 하며 화우대신 가격이 싼 한우를 선호 하는것 같다.

한우는 큰소의 경우 관세 부담과 육질등으로 채산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중송아지(300kg미만)를 사다가 비육판매 하는것을 희망하고 있어 큰소보다는 중소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엔화가 지난 85년이후 계속 강세를 유지 함에 따라 한우의 수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170천엔에 중소를 수출하는 경우 85년에는 한화로 731천원이나 금년 4월에는 833천원으로 102천원이 상승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우수출 전망은 국내 소값

변동과 엔화의 가치변동, 일본화우시세등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 되겠지만 엔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에서도 화우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수입도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점등을 감안 할때 한우 수출은 여건이 개선되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 맺는 말

한우는 이제 농경을 위한 목적에서 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목적으로 용도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쇠고기 자급을 위한 소증식은 요원한 것처럼 여겨 왔으나 국내 소사육두수가 300만두선을 달성하여 소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력만 한다면 소의 자급과 수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생산비를 더욱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후사료 사양보다는 풀사료 위주로 사양을 전환 하고, 일본 화우와 같이 육우품종으로 개량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하튼 한우는 이제 어느정도의 국내자급 수준의 사육두수가 확보 되었으므로 수출산업으로 육성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외화획득에도 큰몫을 차지 하도록 다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우유소비표어

가족건강은 우유로부터!